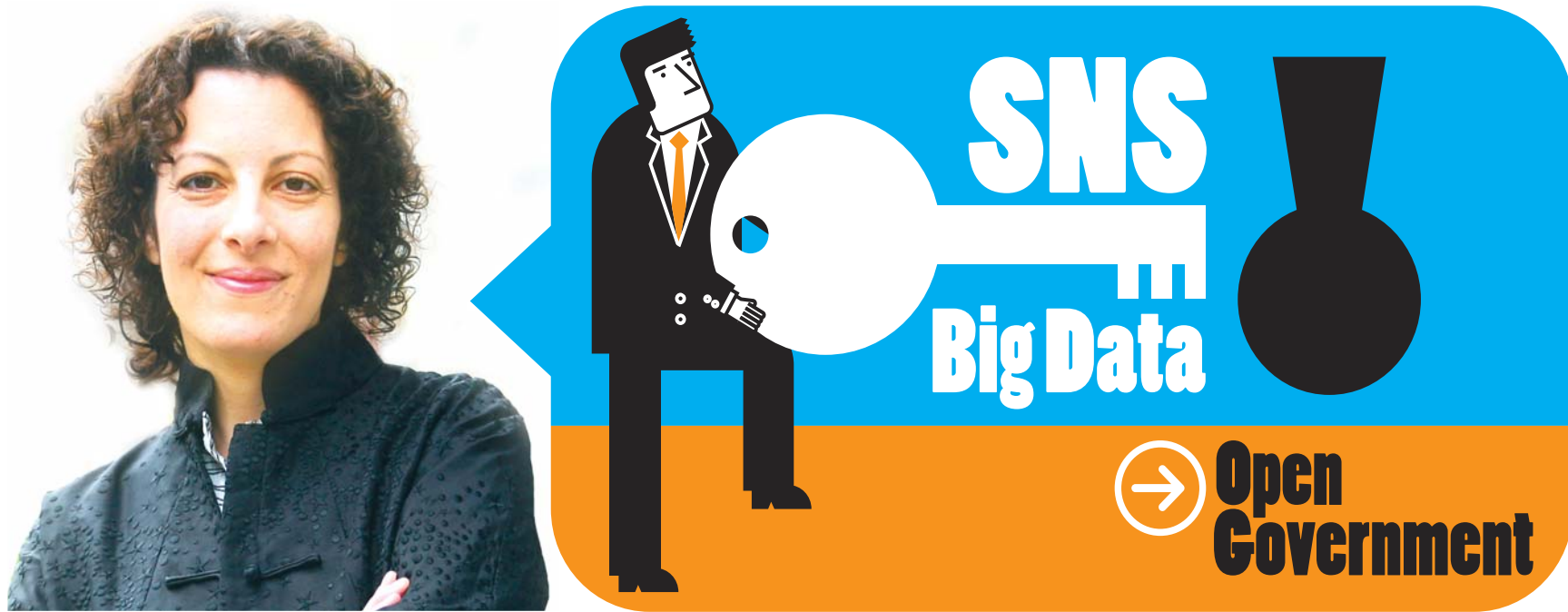


美·英 오가며 정부개혁 컨설팅 베스 노백 뉴욕대 거버넌스랩 소장



누구나 빅데이터 분석할수 있고 실시간 소통 가능해져

‘SNS시대’ 정부개조도 민간이 주도

“날로 폐쇄적이 되고 있는 관료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꾸준한 ‘열린 정부 혁명’이 필요하다.”

정부 혁신 전문가 베스 노백 뉴욕대 교수(43)의 주장이다. 그는 정보 기술(IT) 등을 활용해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열린 정부 혁명으로 규정한다. ‘관피아’ 개혁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귀를 쫑긋 세워볼만한 내용이다.

뉴욕대 거버넌스랩 소장을 맡고 있는 노백 교수는 미국과 영국의 정부 혁신 정책을 주도한 정부 개혁 전문가로 2009~2011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건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 백악관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 담당 디렉터가 당시 그의 직함이었다. 미국 정부 자문이 끝난 후엔 영국 정부가 노백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그를 ‘열린 정부’ 특별고문으로 스카우트해 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가 변화를 이끌어낸 정부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미국(2200만명)과 영국(590만명)을 합해 약 2800만명에 달한다.

그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열린 정부 혁명(Open Government Revolution)’의 핵심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업이 외부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하고 고객으로부터 상품·서비스 사

용 후기를 듣는 것과 같은 논리다. 노백 교수는 “열린 정부라고 하면 흔히 공공부문 정보 공개를 생각하기 쉽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열린 정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히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민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부 3.0에 이어 정부 4.0 단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정부가 민관협력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대해 노백 교수는 “많은 정부가 점차 관료화되고 폐쇄적으로 되다 보니 외부와 단절돼 시대에 뒤쳐진 정책과 비효율적 업무 처리가 만연한 건선·후진국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와 국민을 잇는 일은 쉽지 않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선거였지만 몇 년에 한 번뿐인 선거로 복잡 다단해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노백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소통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이 가

국민의 철학·지식 모아

정책결정 반영하는 게

진정한 정부의 역할

능해졌다”며 “정부도 기술 발전에 맞춰 의사결정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이 ‘열린 정부 혁명’을 이뤄낼 적기라는 것.

열린 정부 혁명은 단계적으로 국민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책결정권 자체를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열린 정부 혁명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백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크라우드소싱’을 제언했다.

노백 교수는 이미 이를 현실화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플랫폼(challenge.gov)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일례로 이탈리아 말까지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피어리뷰제도 개선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NIH는 1·2등에게 각각 1만달러와 5000달러 상금을 내걸었다.

또 오바마 대통령 집권 1년차인 2009년 ‘피어 투 페이턴트(Peer-to-Patent)’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에서는 특허 심사과정에 일반인들을 참여시켰다. 미국 연방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인들이 참여한 첫 사례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모든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data.gov)도 개발했다.

노백 교수는 민간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결정을 강조하는 것은 이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을 때문이다. 그는 “정책을 정부와 관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이는 사회적 좌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CD 등을 사용할 때는 한 번 저장된 정보를 수정할 수 없었다며 세상이 CD처럼 ‘읽기 전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백 교수는 최근 자신의 관심 분야를 온라인 세상까지 확장시켰다.

인터넷 세상의 ‘열린 정부 혁명’을 꿈꾸는 그는 올해 초 결성된 인터넷 거버넌스국제위원회(GCIG)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GCIG는 인터넷 세상의 질서 재편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국제위원회다. 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2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경래 기자

성공 결정 진짜요소는 IQ아닌 9가지 MI지능

‘나만의 성공 DNA를 깨워라’ 정효경 박사

“자신의 잠재성향 중 가장 강한 요소를 파악한 뒤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주는 ‘다중지능(MI)’ 이론을 활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개인의 잠재역량을 찾아내는 새로운 기법에 관한 ‘나만의 성공 DNA를 깨워라’라는 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효경 박사의 주장이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금융공학 MBA, 하버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 박사는 “MI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떤 성공 지능을 가졌는지를 찾아내 커리어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인생 설계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MI’ 이론이란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가 개발한 개념으로 인간의 지능을 논리수리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공간지능, 신체지능, 음악지능, 자연탐구지능, 자기이해지능 등 8가지로 나누고 있다. 정 박사는 여기에서 자기이해지능을 빼는 대신 봉사지능과 감각지능을 더해 9가지 지능으로 분류했다. 우리 현실에 맞게 개량한 것이다.

그는 “MI 이론을 활용할 경우 사람마다 어떠한 사회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9가지 지능 중 우리에게 아주 강한 MI 지능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강한 지능이 우리의 선택을 주도적으로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주 약한 지능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 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9가지 MI 지능은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분포돼 나타난다”며 MI 진단검사를 통해 각 지능에 점수를 매겨 계량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 지능검사는 정 박사가 직접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진단 검사를 통해 9가지 지능과 상해점수가 파악된 후에는 자신의 MI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 패턴이란 9가지 지능이 높고 낮게 분포된

모습을 개념적으로 형태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크게 5종류로 분류된다.

어느 조직에서는 리더로 부상하는 스타형, 특화된 한 가지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스페셜리스트형, 멀티태스킹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제너럴리스트형, 영업 및 고객관리형, 감각 및 봉사지능형으로 나뉜다. 그는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선 MI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또 “MI는 IQ테스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능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Q테스트와 달리 MI는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IQ테스트의 경우 단 한 번의 지능 검사로 그 사람의 지능을 평가하는 결정론적인 방법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MI 이론은 우리에게 다양한 지능이 있고, 개발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분야를 찾는 인간의 욕구에 MI 검사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안명원 기자·사진/김효영 기자

사회현안도 지식경영으로 풀어요

지식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20일 개최

한국지식경영학회(회장 정재우)가 오는 20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사회적 지식경영(Social Knowledge Management): 사회 현안에 답하다’이다.

사회 발전을 위해 지식경영을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식경영이 회사 내부 문제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지난 20년간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쌓아온 지식을 청년실업 해소, 창조경제

실현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관련 논문 13편과 산업 사례 5건이 발표된다.

기조강연은 정옥래 한국건설산업협회 상무와 안미정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이 맡는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서울 KAIST 경영대학원 SUPLEX 경영관에서 열린다.

※참가 문의=한국지식경영학회 홈페이지(www.kmsk.or.kr)

앞서가는 기업은

휘트니스 클럽도 통째로 리스한다

초기투자 제로, 운영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직원전용 휘트니스클럽 리스시스템.

토탈리스

휘트니스클럽 설치에 필요한 모든 투자(인테리어, 운동장비등)와 운영인력, 프로그램을 엔파이어가 대신 공급(투자)하여 초기 투자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위탁운영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휘트니스클럽에 대하여 엔파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와 프로그램 및 운영인력을 파견하여 최고의 매출신장과 운영 정상화를 조기에 만들어 드립니다.

엔파이어휘트니스

6개 프리미엄 휘트니스클럽 직영, 7개 직장 휘트니스클럽을 리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Fitness network brand로서 최고 수준의 트레이너 80명을 보유하고 특화 컨텐츠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No.1 Fitness Network Brand
www.empirefitness.co.kr
Tel. 02. 785. 9040

